



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농장과 식품 생산 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예방
접종 세부 조치 발표**

*연방 공인 보건 센터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농장 및 식품 생산 시설에 팝업 예방
접종소 개설*

*주정부는 4월 21일부터 Angry Orchard 및 기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시설에서
근로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Sun River Health에 500회 분량 초기 할당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접종 대상에는 이주 근로자도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농장과 식품 생산 시설의 근로자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지역 보건부 및 연방 공인 보건 센터와 협력하여 이주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위한 팝업 예방 접종소를 그들의 근무 장소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새로운 예방 접종 조치의 일환으로, 뉴욕주가 현지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인 선 리버 헬스(Sun River Health)에 500회 접종분을 공급하여 Angry Orchard 직원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다른 시설의 농장 및 식품 생산 근로자들에 대해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4월 21일 수요일부터 시행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팝업 백신 접종소를 개설하여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뉴욕주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지역에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 근로자를 포함한 농촌 지역의 식품 생산 노동자와 농장 근로자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부와 식품 생산 근로자에게 직접 백신을 제공하려는 이 새로운 조치는 주의 더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위협적이지만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가 있습니다. 뉴욕 전역의 예방 접종 대상인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 리버 헬스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Anne Kauffman Nol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를 지원하여 뉴욕주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재배하고

수확합니다. 뉴욕의 필수 식품 생산의 대부분은 일 년 내내 진행되며, 이 작업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배자 및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리 지역의 필수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분들의 백신 접근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 큰 진전입니다."

뉴욕 농장국(New York Farm Bureau) 주 이사 Chris Kel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은 농업의 성공과 세인트로렌스 카운티에서 맨해튼에 이르는 수백만 명의 뉴욕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근로자들이 그들의 일상을 지속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수 있어야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공급은 주 전역의 뉴욕 농장국과 농부들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며, 농장 근로자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위해 노력해주신 선 리버 헬스와 뉴욕 전역의 보건 의료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식품 생산 노동자와 농장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려는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불안정한 식량 생산에 대처하기 위한 뉴욕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2022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2021년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총 8,500만 달러의 투자를 위해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에 5천만 달러를 추가합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은 식량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뉴욕주의 광대한 농업 산업을 활용하여 식품 은행과 공급자를 연결하여 현지 재배 및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지사가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한창일 때 너리시 뉴욕을 개시한 이래로, 뉴욕 농부들로부터 2,100만 파운드의 잉여 농산물을 구입하여 뉴욕주 전역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130만 개 이상의 가구에 배달했습니다. 주지사의 2021년 주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발표된 자금의 이 세 번째 라운드를 사용한 구매 및 식품 유통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농촌 및 이주부(Rural & Migrant Ministry)의 행정 전무인 Richard Witt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 근로자, 농부, 소비자, 보건 시스템 및 뉴욕주는 농장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고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농촌 및 이주부 캐츠킵(Catskill) 지역 코디네이터인 Juanita Sarmien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농촌 지역과 이주 지역사회를 돕는 과정에서 이 팬데믹의 영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뉴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예방 접종 및 검사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 캠페인을 수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치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tel:518.474.8418)

구독 취소